

제주도-JDC ‘이관’ 놓고 기싸움

원 지사-문 이사장, 29일 제주포럼 특별세션 참석
元 “제 역할 못해” vs 文 “정부 공동책임 확보 한계”
양 기관 협력사업 ‘신항만 배후단지’ 급부상·관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JDC 제주 이관’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관련기사 2면

제주자치도는 JDC 역할 재정립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JDC는 중앙 협력 차원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은 29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린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특별세션에 참석해 이관과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다.

이날 특별세션은 제14회 제주포럼의 포문을 여는 첫번째 행사로, 좌장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토론자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벤자민 아우 홍중무역발 전국 한국지부장 등이 참석해 열린 논쟁을 벌였다.

원 지사는 ‘JDC가 제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지금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땅을 사고 투자자를 유치해 매각함으로써 결국 개발은 투자자들이 했기 때문”이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업 내용을 열심히 준비해도 투자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없다”며 “JDC가 중개 기관이자 재원을 관리하는 정도라면 (면세점 수익 등) 예산은 제주자치도가 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있어야 하는 시기는 지났다. (제주자치도에 이관된다면) 전문성과 지속성 등의 부분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JDC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자치도의 특혜기관”이라며 “(제주자치도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선도 프로젝트는 JDC 탄생 전 도민 합의에 의해 정해진 사업들”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지만 어찌됐든 JDC가 무한 책임을 느끼고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기관 이전은 정부의 책임을 이끌어 내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민 요구를 받아내고 JDC 제 기능을

찾아가다보면 (이관) 얘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이날 송재호 위원장이 “제주자치도와 JDC가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을 언급, 반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원 지사와 문 이사장이 협의해서 제안한 것 중 중요한 하나가 신항만 배후단지”라며 “제주자치도가 주도하고, JDC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하자는 제안을 주었고, 해양수산부 협의 결과 매우 긍정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 고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추진상황을 전했다.

이어 “신항만 배후부지는 130만㎡ 수준으로 일자리 10만명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본격 추진 JDC, 내달 10일부터 개별 손실보상 시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첨단과기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첨단과기단지 2단지 조성사업의 손실보상을 6월 10일부터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JDC는 지난해 11월 첨단과기단지 2단지 보상협의체를 구성한 후 1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손실보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JDC는 6월초에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 등에 개별 손실보상액을 통보해 6월 10일부터 개별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문대림 이사장은 “첨단과기단지 2단지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토지주 등과 적극적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월평동 2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3200억원을 투자하며 84만 8000㎡(약 26만평) 규모로 추진된다.

JDC는 1단지와 연계한 전기자동차 특구 등 첨단산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시 제주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 조성시 약 3600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 1조 3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대로그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업 ‘성과’

도, 6차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신규 인증 발굴 등 지속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농업농촌6차산업화사업지원센터(이하 제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억원을 투입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원센터는 단순 생산 및 가공에 그치던 지역 농산물의 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제주지원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사업자를 발굴하고, 기존업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사업 설명회 및 인증사업 소규모 그룹 컨설팅·스타트업 스쿨·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디자인·제품개발·마케팅·제품관리 등을 현장코칭하고 있다.

특히 인증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안테나숍 운영을 통해 제품을 알리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장 중심의 유통 플랫폼 사업과 지난해부터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 농촌융복합산업은 인증업체 신청대비 인증비율이 타 지역의 경우 45% 내외에 그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6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원센터는 앞으로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비짓 제주(VISIT JEJU) 콘텐츠 제작 체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타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윈윈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수출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대로그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화 도, 6월 시행 앞두고 읍면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9일 도청 탐라홀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초청해 읍면동장 등 관련 분야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4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제주시 장애인 분야와 서귀포시 노인 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케어안내 장구를 운영하는 읍면동과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해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교육강사로 나선 보건복지부 박문수 사무관은 “포용적 시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추진방향과 선도사업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특히 읍면동 케어안내장구에서 상담하게 될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통



양귀비의 화려한 유혹 28일 제주시 애월읍 향파두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관상용 양귀비 꽃밭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다. 관상용 양귀비는 ‘개양귀비’라고도 불리며 마약 성분은 없지만 꽃은 화려한 모습으로 양귀비와 비슷하다. 강희만기자

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요양·돌봄·보건 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이며, 우선 제주시 지역에서 장애인 돌봄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확보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

인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 내 공공·민간기관 단체와 협력해 제주형 통합돌봄모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숙자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광복테라스

귀하의 특별한 삶에 ‘쉼’표를 더합니다

제주의 아침을 깨운 싱그러움 햇살, 목가적 일상이 나른하게 흐르는 **황토방 개인텃밭**의 재료로 요리한 오가닉 식사,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전용풀장**에 물을 받아두면, 넓은 **테라스 데크**, 향기로운 카푸치노 살짝 먼지 묻은 카브리올레에 물을 뿌리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출발 한다. **웅장한 게이트**의 문이 열리고 정원수가 우거진 길을 따라 돌아오면, **전용 주차장**, 나란히 서있는 **가족 차 3대 벽난로**가 점화되고 홀파티가 시작되면, 제주 바다에 드리운 Sunset, **행복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제주 럭셔리 테라스하우스
064)711-9277
모델하우스_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4-11

프레스티지 테라스하우스 테라시티 The **슬**

고용적 거실

라식리 주방

테라시티 The **슬**